

속담에 나타난 한국과 베트남의 여성상 비교

1. 서론

베트남과 한국은 1992년에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 때부터 학자들이 양국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개괄적인 문제부터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베트남은 둘다 중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국가다. 봉건사회에서 양국의 여성은 아주 간혹한 압박을 많이 겪었고 남성에 복종하여 평생 엄격한 규칙과 윤리를 따라야만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교사상이 양국에 미친영향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여성상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여성관련 속담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왜냐하면 속담은 당시 사회의 배경과 사상, 생활과 의사소통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관련 속담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당시의 여성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길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속담이 조선시대에 형성되었고 유교사상도 이 시대에 가장 발전했다. 따라서 유교사상이 여성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속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양국의 여성상을 잘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베트남 여성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외모기준과 덕행과 팔자를 중시하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외모기준으로 볼 때 양국 여성의 미를 달과 눈과 꽃을 비롯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묘사하여 동방 여성의 미적 기준과 부합한다. 양국은 외모를 중요시하지만 외모보다 도덕의 미를 더 강조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여성의 덕행은 친정부모와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충실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가락한 마음씨다. 그렇지만 여성의 팔자는 슬프게도 남성의 처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운명적이다. 여성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삼종지도에 따라 살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차이점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과 혼인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한 반면 베트남은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어느정도 인정한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도 많이 다르다.

본 연구를 통해 봉건시대에 살았던 양국의 여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성불평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가정과 사회 전반에 양국 현대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국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교류를 촉진시키는 의미도 있다.

2. 본론

2.1. 속담의 정의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속담의 공통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래는 저명한 연구자들이 연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한국 속담을 정의한 기준 중 일부를 제시한다.

첫째, 국어국립학원의 표준사전 정의에 따르면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또는 속된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즉, 속담은 조상들의 뛰어난 지적 유산이며 훌륭한 도덕적 유산이다. 속담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통해 각 민족과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과 가치관 및 관습이 반영될 수 있다.

네이버 전자사전에 따르면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온 쉬운 격언이나 잠언이다. 속담은 조상들의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표현으로 민간의 관습과 풍습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구어로 격언이나 잠언을 인식하는 것 외에 교양있는 사람들과 현명한 사람들의 말도 속담에 포함되고 있다.

2.2. 한국과 베트남 속담에서 나타난 여성상의 공통점

2.2.1. 외모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우선 그들의 얼굴과 체격 등에 대해 생각한다. 한국 속담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언급할 때 얼굴의 아름다움을 먼저 묘사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성은 둥근 얼굴을 가진 여성이다. 둥근 얼굴은 복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며 자식에게도 많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형은 이런 문장이다 :

"떠오르는 달 같다"

한국인은 한 여성의 얼굴을 꽃과 비유한다.

"꽃과 같은 얼굴"

꽃과 달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한국어 속담에서 두 가지 친숙한 이미지이다. 한국인의 관점에 따르면, 꽃과 달은 순수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여성의 미와 비슷하다. 꽃의 아름다움은 색깔과 향을 지니고 있다.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순수한 달은 둥근 모습이고 밝은 빛을 낸다. 여성의 얼굴도 순수한 달의 빛처럼 밝은 아름다움을 낸다. 달이 한국 속담에 많이 나타난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 첫째, 과거 농업국가의 활동은 주로 자연에 기반을 두었다. 수확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고대인은 달의 음력 날짜를 계산했다. 농업 생산을 위해 날씨를 예측하는 달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 현상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달은 사람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달은 순수한 빛의 상징이기도하고 부드러운 여인의 아름다움과 비교된다. 동시에 달의 이미지가 여성의

건강 (월경)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 표준은 다른 아시아 국가 여성의 표준과 비슷하다.

한국 고전에 의하면 하얀 눈과 하얀 피부가 있는 여성을 선호한다:

"눈의 살결에 꽃 같은 얼굴이다"

"옥 같은 살에 붉은 얼굴이다"

한국은 온대성기후 나라로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 눈은 사람들의 삶과 친숙한 이미지가 있으므로 그 만큼 한국 속담에 많이 등장했다. 온대성 기후라서 한국 여성들은 하얀 피부를 가지기 십상이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 (University of Toronto)의 전문가에 따르면 상류층 백인 여성들은 햇볕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얀 피부는 고대 한국 여성에게 아름다움의 표준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 달과 꽃 같은 대상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준을 보여주는 속담도 있다.

"희어야 미인이다"

여성의 보름달처럼 생긴 얼굴, 검은 머리카락, 벚꽃처럼 생긴 입술, 버들 같은 눈썹, 흰눈 같은 피부 등은 아시아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많이 등장하며 한국 속담도 예외는 아니다:

"버들 같은 눈썹에 복숭아 같은 얼굴이다"

"앵두 같은 입술에 박씨 같은 이빨이다"

특히, 알아본 결과 "복숭아"라는 이미지가 아름다운 여성에 관해 한국 속담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복숭아 꽃"도 같은 상징적 의미로 언급되었다. 모든 꽃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 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한국인들이 순수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벚꽃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다.

"여자의 미는 첫째가 머리요, 둘째가 화장이요, 셋째가 웃이요"

위의 속담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알려준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은 한국의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 속담에서도 "하얀 피부, 붉은 입술, 버드나무 눈썹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Da trắng như tuyết"

(눈같은 피부)

"Da trắng như trứng gà bóc"

(계란 껍질 같은 하얀 피부)

"lông mày lá liễu"

(버드나무같은 눈썹)

"Răng đều hạt lựu tướng hàng phu nhân"

(석류 씨앗같은 이)

"Da trắng tóc dài"

(하얀 피부와 긴 머리카락)

"Tóc đen như gỗ mun"

(흑단같은 검은 머리카락)

2.2.2. 덕행

한국 여성은 남편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대한다.

""고와도 내 님이요, 미워도 내님이다"

위 속담은 조금 극단적이지만 남편에게 절대적인 배려와 마음을 보여준다. 그가 좋든 나쁘든간에 남편을 위해 헌신한다. 속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즉, 남자는 여러번 결혼을 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 반면에 여인은 남편에게 충실해야 하고 남편과 함께 끝까지 인생을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성은 항상 남편을 따라가야 하며 다른 남성과 부정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된다.

"삼수갑산을 가도 님 따라 가랬다"

이 속담은 인생이 어렵더라도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한다는 말이다. 진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에게 불공평하며 가혹한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편을 위해 같이 극복하면서 남편을 돌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다:

"여자는 남편사랑 먹고 산다"

한국 여성의 이미지는 책임있는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해 묘사되고, 수완 있고, 희생적이며 항상 가족의 행복을 위해 참고 살아간다. 한국인의 경우, 아내는 가정 주부가 되어야 하며, 남편은 국가의 대사만 담당해야 된다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래서 여성은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다. 여자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부분 부부관계가 비교적 좋고 조화롭다.

"남편은 두레박 아내는 항아리"

"여자가 부엌에서 얻고 남자가 골방에서 얻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부인의 미덕이다.”

한국 여성의 자질은 과거 베트남 여성의 자질과 비슷하다. 첫째, 베트남 여성들은 남편에게 깊은 사랑으로 대한다.

"Thương ai cho bằng thương chồng"

(누구보다 남편을 가장 중요시한다)

"Thương chồng nên phải gắng công"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감정과 희생도 속담속에서 묘사된다.

"Sống quê cha, ma quê chồng".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야 한다)

부부 역할을 분담하기에 이런 속담이 있다 :

"Đàn ông quanh nhà, đàn bà quanh bếp"

"Đàn bà quện bếp"

(집 주변에 남자가 있고, 부엌 주변에 여자가 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사회적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베트남 문화에서 부엌은 오랫동안 가족의 중요한 장소였다. 이곳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는 곳이다. 따라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면 아내가 부엌일을 잘 챙겨야 한다.

특히 여자는 항상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 봉건사회의 남자는 대부분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기질 또한 딱딱하거나 화를 잘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가족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Chồng tới vợ phải lui".

(남편이 앞으로 가면 아내는 뒤로 가야 한다)

2.2.3. 팔자

여자들은 운명적인 인생으로 많은 울화병을 앓고 있다. 그들이 소녀였을 때조차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고 부모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다. 한국인의 속담은 이런 불행한 팔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천 생연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의 삶은 우연한 놀이와 같다.

"여편네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미인은 박명하고 재수있는 사람은 병이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내와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남편과 자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여자는 어린적에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하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남자의 그림자처럼 발 아래에서 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밝은 미래를 보낼 수 있는 반면에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여성의 삶은 지옥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결혼은 도박과 같다.

"박색 소박은 없어도 일색 소박은 있다"

"낙시에 걸린 물고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 관계인데 이에 대해 한국속담에도 여러 문장으로 표현된다.

"삼수갑산을 가도 님 따라 가랬다"

이 속담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드러내지만 과거 봉건사회에서 부부관계의 부정적 면을 반영한다.

"여편네 팔자는 뒤웅박 팔자"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은 죽을 때까지 한 번만 결혼하고 남편에게 평생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멸시를 받게 된다.

"죽어도 시집 울타리 밑에서 죽어라"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 속담들은 한국 남편과 아내 사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베트남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아름답고 수완이 많은 베트남 여성들도 한국여성처럼 많은 불행을 당하며 고통스런 운명을 피하지 못했는데 이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여성의 세 번째 유사점이기도 하다. 결혼을 하면 남편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도박과 같다. 여자는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고 저항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베트남에서 여성의 불행한 팔자에 대한 내용이 민요에서는 매우 풍부한데 속담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허약하게 묘사되었으며 가족 중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남편에게 아주 의존적이다:

"Núp bóng tùng quân"

(소나무 아래에 숨긴다")

(Bé nhờ cha, lớn nhờ chồng, già nhờ con)

"어릴 때 아버지에 의존하고 결혼 후에 남편에 의존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에게 의존한다)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두 국가의 속담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여성은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관념이 있었고, 여성의 말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 줄 수 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다.

"Ra ngõ gặp gái, mọi cái mọi sai"

(아침에 거리에서 여자를 만나면 그날의 모든 일은 다 망한다)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이 한국보다 여성의 외모에 대해 경멸적인 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외모로만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외모가 예쁘지 못한 여성은 멸시를 당한다.

2.3 한국과 베트남 속담에서 나타난 여성상의 차이점

위에 언급된 내용은 한국과 베트남의 유사성이지만 양국 여성의 이미지는 일부 차이점도 있다.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첫째,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관념은 다소 달라서 아내에 대한 자세와 결혼에 대한 자세가 조금 더 다르다. 예전에, 한국인은 결혼을 인륜지대사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은 이 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쁜 남편보다 독신 생활이 더 좋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속담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관념을 보여줄 수 있다:

"악한 첩과 더러운 처도 빈 방보다 낫다"

"열두 효자가 악처 하나만 못하다"

"열 자식이 악처 하나만 못하다"

그런데 베트남 속담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관념이 거의 없다:

"Chồng con là cái nợ nần

Thà rằng ở vậy nuôi thân béo mồm".

(남편과 자식이 빚같아. 혼자 살기가 더 좋다)

둘째, 두 나라의 속담에 표현된 것을 보면 가정안에서 여성의 역할도 서로 다르다. 베트남의 속담에 여성의 역할은 한국 여성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강조되고 남편의 인정을 받으며 심지어 남편의 역할과 동등한 지위까지도 인정한다.

"Của chồng công vợ"

(남편의 재산은 아내의 고생이다);

"Thuận vợ thuận chồng tát biển Đông cũng cạn"

(부부가 잘 되면 동해물도 없앨 수 있다);

"Gái có công, chồng chẳng phụ"

(아내가 고생하면 남편은 잘 보답한다)

"Làm ruộng phải có trâu, làm giàu phải có vợ"

(농업을 하려면 물소가 있어야 하고, 부유하게 되려면 아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베트남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남편의 인정을 받았다.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두 나라에 대한 유교적 접근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게 되었다. 한국이 중국에서 유입된 유교를 그대로 흡수한 것과 달리 베트남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훈을 활발하게 개진하면서 독창적인 방법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피차유교가 근원이지만 양국 문화가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베트남의 경우는 유교를 창조적으로 선택도입해서 한국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에 유교를 자발적으로 도입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회를 통치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본격적으로 채택하여 중국보다 더 가혹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유교가 중국 침략시 중국 문화에로의 동화를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낙관적인 국민성을 지닌 민족으로서 사랑을 강조하고 평등을 존중하여 베트남 여성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 여성보다 더 많았다.

3. 결론

보고서의 양적인 한계 속에서 양국의 속담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여성상을 비교했다. 현대사회에서도 아직 유교의 영향력이 잔존하고 있지만 한국과 베트남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어느정도 인정되고 존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봉건시대에 살았던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여성상을 깊이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성불평 등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개선함은 물론 양국 현대여성들의 여권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가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반교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면 좋겠다.